

생태관광활동 참여에 따른 관광환경태도의 변화

- 우포늪 습지 방문객을 중심으로 -

김진* · 고동완**

*경기대학교 대학원 여가관광개발학과 · **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A Change in Tourism Environmental Attitudes through Ecotourism Activities - Focusing on Ecotourism Participants in Upo Wetlands -

Kim, Jin* · Ko, Dong-Wan**

*Dept. of Leisure and Tourism, Graduate School, Kyonggi University

**Dept. of Tourism and Recreation, Kyonggi University

ABSTRACT

Ecotourism is an alternative tourism which can be defined as responsible tourism in natural areas. This study deals with changing the tourists' environmental attitudes of ecotourism activities based on the elaboration likelihood model(ELM). The surveys were conducted based on the same participants to clearly measure the differences of environmental attitudes between pre and post-participation ecotourism activities. A total of 183 samples were collected in Upo Wetlands.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tourists' environmental attitudes between pre and post-participation ecotourism activities. This indicates that ecotourism participants delicately reinforce their eco-friendly attitudes through various ecotourism experiences and educational programs. The most significant finding is that anti-environmental behavior can be relieved with eco-friendliness through participation in ecotourism.

Key Words: Responsible Tourism, Environmental Behavior, Elaboration Likelihood Mode(ELM)

국문초록

생태관광은 환경을 보존하고 지역주민의 복지를 유지하는 자연지역으로의 책임 있는 관광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대안관광의 하나로 최근에 들어 생태관광에 대한 연구와 생태관광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정교화 가능성 모형(elaboration likelihood model: ELM, Petty and Cacioppo, 1986) 이론을 바탕으로 생태관광활동에 참여하는 관광객은 높은 정교화 수준의 고관여 집단으로 이미 친환경 태도를 형성하고 있는 집단이며, 이들의 신념과 태도에 일치하는 생태관광활동 참여는 순환적으로 친환경 태도를 강화할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2010년 9월에 랍사르 등록 습지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태관광지라 할 수 있는 우포늪 습지에서 방문객 183명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생태관광활동에 따른 관광환경태도의 변화를 논의하였다.

Corresponding author: Dong-Wan Ko, Dept. of Tourism and Recreation, Kyonggi University, Suwon 443-760, Korea, Tel: +82-31-249-9509, E-mail: dwko@kgu.ac.kr

생태관광활동 참여 이전과 이후의 관광환경 태도의 변화는 ‘반환경적 행위동조 요인’ > ‘추억 표상 요인’ > ‘반환경적 일탈 요인’의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생태관광활동 참여자는 관광활동 중에 생태관광 자원의 본질적 속성에 의한 영향과 다양한 환경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방문 전에 형성하고 있는 친환경적인 태도를 보다 정교하게 강화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조사대상지인 우포늪 생태관광지는 생태관광 개발 및 운영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친환경 태도의 형성과 강화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요인별 변화에서 생태관광활동 참여가 양극단의 환경태도보다는 ‘반환경적 행위동조’라는 중간적 환경태도 변화에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생태관광활동 참여를 통하여 ‘반환경적 행위동조’ 태도를 친환경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생태관광의 역할을 확인하는 중요한 결과이다.

주제어: 책임관광, 환경행동, 정교화 가능성 모형

1. 연구 배경 및 목적

환경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의 증가는 관광분야에서도 예외일 수 없으며, 그 영향으로 새로운 관광유형이 주목받게 되었다. 즉, 기존의 대량관광이라는 획일화된 유형에서 벗어나 자연관광, 녹색관광,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관광 등 환경에 초점을 맞춘 관광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WTO, 1997). 이러한 관광유형은 자연 파괴적이기 보다는 자연 친화적이며, 양적인 차원의 대량관광과는 달리 질적인 차원의 품질관광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하드웨어 위주의 관광시설 개발보다는 소프트웨어 위주의 관광상품 개발에 중점을 두며, 정부나 지자체 주도의 하향식 개발방식보다는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개발방식을 요구하는 등의 특징을 지닌 기존의 대중관광에 대한 일종의 대안관광이라 할 수 있다(엄서호, 2000).

생태관광이라는 용어는 1965년에 Hetzer가 ‘Links’라는 잡지에 관광이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을 비평하는 글을 기고하면서 그 대안으로 ‘생태적 관광(ecological tourism)’을 제안하였는데, 이것이 생태관광에 대한 최초의 언급으로 보고 있다(Wallace, 1992; 박석희, 2000: 69 재인용). 국제생태관광학회(TIES: The International Ecotourism Society)는 생태관광을 환경을 보존하고 지역주민의 복지를 유지하는 자연지역으로의 책임 있는 관광이라고 정의하였다(TIES, 2000).

생태관광의 여러 가지 필요·충분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관광객의 태도이다. 왜냐하면 관광객의 수요나 태도는 직·간접적으로 관광지의 다양한 환경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조진희와 김수봉, 2007). 즉, 관광객들의 태도가 친환경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생태관광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실천 불가능하다. 또한, 한 개인이 환경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생태관광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조진희와 김수봉, 2007). 결국, 생태관광과 관광객의 친환경적 관광태도는 상호 선순환적 영향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소위 녹색소비자(green consumer)의 관점에서 친환경소비자 및 행동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관광객의 환경 태도나 친환경 행동에 대한 연구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며(예, Mansfeld and Ginosar, 1994: 958; Luzar, et al., 1998; 고동우, 2000; 2006), 특히 생태관광이라는 새로운 관광유형을 환경태도의 문제에서 논의하지는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관광객의 친환경 태도는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규범)과 친환경 지식(의식)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생태관광과 관광객의 관광환경 태도는 상호 선순환적 영향관계에 있음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즉, 친환경적 관광태도를 가지는 사람들이 생태관광에 참여하고, 생태관광활동 참여가 보다 친환경적으로 관광환경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검증함으로써 생태관광의 개발 및 운영전략 등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생태관광

기존의 대량관광은 환경파괴를 초래하고 지역주민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비판을 받기 시작하였다. 결국, 자연자원 및 환경보호, 환경친화적 개발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고,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의 연속선상에서 관광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지속가능한 관광이 대두되었다(김성일과 박석희, 2001). 기존관광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관광’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결합한 형태의 “지속가능한 관광”이 새롭게 대두되었다. 기존 관광은 관광객의 대규모 유치가 목적이므로 선개발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최영국과 임상연, 2005).

이러한 지속가능한 관광을 실현하며 기존관광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등장한 것이 대안관광이다. 생태관광은 대안관광의 하나의 유형으로 생태적 가치가 있는 자원의 보전과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을 함께 도모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에 의하여 관광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점이 기존관광과 다른 점이다. 자연자원보전을 전제로 자원성격이 부합되는 관광개발을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여 지역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이른바 새로운 관광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Wallace(1992)는 역사적으로 볼 때 생태관광이라는 말이 처음 언급된 것은 1965년 Hetzer가 기존관광에 대한 대안으로 생태적 관광(ecological tourism)이라고 언급한 것이 그 시작이라고 하였다(박석희, 2000: 7). 그 이후 1983년에 환경보전주의자이며, 정부 부처의 장관으로 활동하던 Ceballos-Lascurain에 의해 생태관광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미국홍학(American flamingo) 번식지인 유카탄(Yucatan) 북부의 습지를 보전하기 위한 운동을 펼치면서 생태관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Gilbert, 1997; 박석희, 2000: 69 재인용).

생태관광의 개념은 시대 변화에 따른 자원의 성격과 연구의 목적, 내용에 따라 많은 학자들과 단체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었으나, 실제 국제간, 학자간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김성일과 박석희, 2001).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태관광학회(The Ecotourism Society)에서 정의한 환경보호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염두에 두고 자연지역으로 떠나는 책임 있는 여행(Western, 1993)이 공유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관광공사(1996)가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생태관광의 정의를 첫째, 관광객 중심의 환경체험관광: 관광객에게 줄 수 있는 특별한 체험 강조, 둘째, 관광객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활동: 생태관광을 통해 얻는 교육적 효과 강조, 셋째, 환경보전, 관광, 경제적 측면 등에 종합적으로 기여하는 관광: 생태관광의 긍정적 효과 강조, 넷째, 자연환경 보호·보전을 위한 관광: 자연환경 보호를 강조, 다섯째, 환경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유지하는 관광: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고동완 등, 2010: 41).

생태관광은 대상지의 자연과 문화환경 보전에 공헌하는 적극적인 참여로 표현되며, 교육적 및 해설적 요소를 포함하여 참여자들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시키는 물론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자 한다(Griffiths, 1993; Wight, 1993). 또한, 고동완 등(2010)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생태관광이란 잘 보존된 생태계를 관광목적지로 하는 생태관광자원의 관광경험에서 대량관광의 대안으로서 관광목적지 지역사회 복지실현 등 관광객의 윤리적 가치를 포괄하는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포늪은 약 8.54km²이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생태관광 목적지라고 할 수 있다.

2. 관광환경 태도 및 태도 변화

태도는 어떤 대상에 대한 신념들의 집합체이며, 시간과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하지 않는 비교적 안정적인 개념이며, 이러한 태도는 '가치'라고 불리는 가장 일반적인 신념 체계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는다. 즉, 태도는 개인의 핵심가치를 직접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고동우, 1998). 구체적인 행동은 개인의 가치나 신념 혹은 태도에 의해 직접 결정될 수 있으므로, 관광객의 환경 관련 행동은 그 개인이 환경문제에 대해 가지는 어떤 신념이나 일반적인 태도에 의해 직접 결정될 수 있다(고동우, 2000: 48). 태도란 어떤 대상(object), 사람(person), 제도(institution) 또는 사건(event)에 대해 우호적 또는 비우호적으로 반응하려는 경향(disposition)이다(Ajzen, 1988). 이 경향은 특정 측면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느낌, 행동의 양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김남조, 2001).

태도는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형성된다. 일단 형성된 태도는 비교적 안정적 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태도의 인지적 요소와 감정적 요소가 균형을 이루면 구매행동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이는 환경의 다양한 영향에 대하여 저항하려는 속성을 보이게 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관광객의 친환경 태도는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규범)과 친환경 지식(의식)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사회적 책임감이나 규범의식이 많을수록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것이고, 관련된 정보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으며, 나아가 친환경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동우, 2006: 143).

또한 정교화 가능성 모형(Elaboration Likelihood Model: ELM, Petty and Cacioppo, 1986)에 의하면 중심적 경로의 높은 정교화 수준(고관여)에 의해 형성된 태도는 적극적인 참여의 결과이기 때문에 비교적 영속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심적 단서(central cues)를 고려하여 해석하고 기존의 태도와 통합하는 과정에서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인지노력을 기울인다(Eagly and Chaiken, 1993: 305-309 재인용).

따라서 생태관광활동에 참여하는 관광객은 높은 정교화 수준의 고관여 집단으로 이미 친환경 태도를 형성하고 있는 집단이라고 있으며, 이들의 신념과 태도에 일치하는 생태관광활동 참여는 순환적으로 친환경 태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가설할 수 있다. 이는 생태관광의 환경해설(문창현, 2009)이나 체험환경 교육(방순혁과 이상원, 2008)이 환경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역설적으로 생태관광 개발 및 운영은 기본적으로 친환경 태도의 형성과 강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가설의 검증은 기존 생태관광 운영의 평가가 될

수 있다.

III. 연구설계

1. 연구대상지

본 연구는 국내 랍사르 등록 습지 11개소 중 경상남도 창녕군에 위치하고 있는 우포늪을 연구대상지로 설정하고, 이곳을 방문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연구문제를 실증 분석하였다.

우포늪 습지(우포·목포·사지포·쪽지벌을 총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자연내륙습지로 창녕군 유어면, 이방면, 대합면, 대지면 4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펼쳐져 있고,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약 8,54km²이며, 우포늪이 물을 담고 있는 습지 면적은 약 2,31km²이다. 주요 탐방시설로는 우포늪 생태관(전시실, 시청각교육실, 회의실, 자료실), 생태탐방로, 자생식물원, 전망대, 기념품판매소 등이 있다. 자원의 특성으로는 가시연, 가물치, 대칭이, 나비잡자리 등 2,000여 종의 식물, 곤충, 어류, 조류들이 상생하고 있어 고도의 생물상 다양성을 지니며, 생명부양력이 높은 생태계로서 생물학적 가치가 높이 인정되고 있다(한국관광공사, 2009). 우포늪 습지는 철새도래지로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천연기념물 제15호(1962년 12월 3일), 생태계 모니터링 지역(1993년 6월 29일), 생태계특별보호구역(1997년 7월 26일)으로 지정되었고, 2008년에는 제10차 랍사르 총회를 개최하여 국제적으로도 생태학적 가치를 인정(http://www.upo.or.kr, 2010) 받고 있다.

본 연구의 우포늪 탐방활동이 생태관광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논쟁이 될 수 있겠지만,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태환경 자원이고 탐방객들이 5~6시간 정도를 체재하며 생태관 관람뿐만 아니라 습지와 관련한 탐방 및 체험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생태관광의 범주에서 논의하였다.

2. 설문지 설계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한 실증연구로 설문지는 관광환경태도(사전·사후)와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2개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관광환경태도 17개 문항은 고동우(2006)가 개발한 관광환경태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은 성별, 연령, 직업, 학력, 가구 총 월평균 소득, 생태관광지 방문 횟수, 생태관광에 대한 정보 원천, 교통 이용 수단, 거주지 등 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관광환경태도 측정은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기본으로 사용하였으며(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측정된 후 연전하여 분석함), 인구통계학적 특성 설문은 명목 척도(nominal scale)로 측정하였다. 설문지에서 개방형 문항은

연령과 거주지를 묻는 2개 문항이고, 나머지 41개 문항은 폐쇄형 설문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경상남도 창녕군 우포늪을 방문하여 생태관광 활동에 참여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2010년 9월 16일부터 9월 19일까지 총 4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조사원은 본 연구의 주제 및 목적을 이해하고 있는 연구자 등 3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표본추출은 생태관 주차장에 도착하는 방문객(9시부터 14시까지)과 출발하려는 방문객(14시부터 19시까지)에게 설문지를 나누어 주고 자기기입식으로 응답자가 직접 설문지에 기입하게 한 후 회수하는 편의추출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특히, 설문지에 응답자의 전화번호 뒷자리(4개)를 기재하도록 하여 생태관광활동 참여 이전과 이후의 동일인의 응답을 연결하였다.

설문조사는 만 17세 이상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총 300부를 설문지는 배부하여 246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183부를 최종적으로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생태탐방활동 이전과 이후의 조사 간격을 약 5~6시간 정도로 차이를 두어 충분한 우포늪 습지 생태탐방활동이 이루어진 후 조사가 되도록 하였고, 우포늪 탐방을 하지 않고 생태관만 이용한 응답자의 설문지는 제외하였다.

3.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우포늪 습지 방문객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먼저 응답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이 96명(52.5%), 여성이 87명(47.5%)으로 표본의 남성 응답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은 30대가 61명(33.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20대가 57명(31.1%), 40대 31명(16.9%), 50대 25명(13.7%)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모든 연령층에서 우포늪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교(전문대) 재학, 졸업 학력을 가진 응답자가 118명으로 전체의 6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대학원 졸업(재학)이상 학력이 33명(18.0%), 고졸이하 30명(16.4%)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300만원 미만인 69명(37.7%), 300~500만원 미만 61명(33.3%), 500~700만원 미만 28명(15.3%), 700만원 이상 25명(13.7%)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사무직(공무원, 일반사무)에 종사하는 응답자가 50명(27.3%), 경영관리직 42명(23.0%), 기술기능직, 전문자유직 33명(18.0%), 농업, 어업, 축산업, 생산직, 주부 등이 32명(17.5%), 영업직(판매, 서비스) 18명(9.8%)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포늪 습지와 같은 생태관광지 방문횟수는 처음 방문하는 응답자가 100명으로 전체의 54.6%를 차지하고 있으며, 2회 38명(20.8%), 3~5회 37명(20.2%), 6회 이상 8명(4.4%)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75% 정도가 처음 또는 두 번째로 생태관광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화 또는 학습효과의 문제는

표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구성비(%)
성별	남성	96	52.5
	여성	87	47.5
연령	20대	57	31.1
	30대	61	33.3
	40대	31	16.9
	50대	25	13.7
	60대 이상	9	4.9
직업	농업, 생산직	32	17.5
	기술전문직	33	18.0
	영업직	18	9.8
	사무직	50	27.3
	경영관리직	42	23.0
	기타	8	4.4
학력	고졸 이하	30	16.4
	대학교 재학, 졸업	118	64.5
	대학원 졸업 이상	33	18.0
	기타	2	1.1
소득	300만원 미만	69	37.7
	300~500만원	61	33.3
	500~700만원	28	15.3
	700만원 이상	25	13.7
생태관광 방문횟수	처음	100	54.6
	2회	38	20.8
	3~5회	37	20.2
	6회 이상	8	4.4
생태관광 정보원천	주변소개	31	16.9
	TV, 신문 등	92	50.3
	인터넷 등	44	24.0
	개인경험	8	4.4
	기타	8	4.4
교통수단	자가용	162	88.5
	전세, 관광버스	3	1.6
	고속, 시외버스	12	6.6
	기타	6	3.3
	수도권	31	16.9
거주지	충청권	44	24.0
	호남권	13	7.1
	동남권	77	42.1
	대경권	18	9.8
	계	183	100.0

극복할 수 있으며, 연구문제의 논의에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생태관광에 대한 정보원천은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의 정보를 이용한 응답자가 92명으로 전체의 5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터넷, 여행사, 안내홍보물 이용 44명(24.0%), 주변사

람 소개 31명(16.9%)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우포늪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주로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정보를 획득함을 알 수 있다. 교통수단으로는 자가용 이용이 162명으로 전체의 88.5%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속, 시외버스, 택시 이용 12명(6.6%)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는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77명으로 전체의 4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충청권(충북, 충남, 대전, 강원) 44명(24.0%),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1명(16.9%), 대경권(대구, 경북) 18명(9.8%), 호남권(광주, 전남) 13명(7.1%) 순으로 나타났다.

IV. 결과 및 고찰

1. 관광환경태도 측정항목의 신뢰도 및 타당도

표 2는 관광환경태도 측정항목의 내적합치도 등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변이계수와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이때 관광환경태도 항목은 사전 태도를 사용하였으며, 분석 결과 전체 17개 항목 중 '관광지 기념물은 관광객을 위해 존재한다', '관광지의 야생동물을 잡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휴지 한 장 버리는 않는 사람은 없다' 등의 3개 항목은 변이계수, 항목-전체간 상관계수, 다중 상관계수 등에서 내적합치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고, 나머지 14개의 항목으로 관광환경태도 측정항목으로 선정하였다.

표 3은 관광환경태도 측정항목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14개 항목을 주성분 분석 방법을 이용한 Varimax 회전에 의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로, 14개의 관광환경태도 측정항목은 3개 요인에 의해 설명할 수 있었다. 관광환경태도 항목들의 요인적재량은 0.40 이상, 공통변량 역시 0.40 이상으로 나타나 안정된 요인 구조를 나타냈고, 고유값 1 이상의 3개의 독립된 요인으로 구분되고 있어 판별타당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집중타당도는 결합된 요인간의 변수별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이 0.40 이상으로 각 소속요인에 높게 적재되어 있어 본 연구에 사용한 관광환경태도의 측정항목들은 집중타당도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요인은 '돌·꽃을 가져오는 것은 관광객의 권리이다', '추억을 남기기 위해 조약돌 정도는 주워볼 수 있다' 등 관광지에서 돌, 꽃, 기념물 등 관광활동의 징표나 추억을 위한 소극적 추억 만들기과 관련된 문항으로 '추억 표상'으로 명명하였고, 분산 설명력은 44.39%이다.

두 번째 요인은 '예쁜 꽃 한 송이 정도는 꺾어 올 수 있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린다면 나도 버릴 수 있다' 등 반환경적 행동에 대한 동조 태도 항목으로 구성되어 '반환경적 행위동조'로 명명하였으며, 분산 설명력은 9.35%이다.

세 번째 요인은 '시끄럽게 노는 것은 어찌면 당연하다', '관광

표 2. 관광환경태도 측정항목의 신뢰도 분석

항목	평균	표준 편차	변이 계수	항목-전체간 상관관계	다중 상관관계	항목제거시 α	신뢰도 계수 α
돌·꽃을 가져오는 것은 관광객의 권리이다.	4.64	0.88	0.19	0.60	0.54	0.87	0.90
관광지의 기념물은 관광객을 위해 존재한다.*	3.02	1.47	0.49	0.25	0.17	0.89	
추억을 남기기 위해 조약돌 정도는 주워올 수 있다.	3.87	1.26	0.33	0.64	0.50	0.87	
관광지의 야생동물은 잡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4.49	1.00	0.22	0.37	0.25	0.88	
기념물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관광은 재미없을 것이다.	4.30	1.10	0.26	0.56	0.43	0.87	
돌에 이름을 새기는 정도는 봐줄 수 있다.	4.64	0.82	0.18	0.60	0.49	0.87	
담배 궤초 버리는 정도는 용서해야 한다.	4.78	0.75	0.16	0.40	0.30	0.88	
휴지 한 장 버리지 않는 사람은 없다.*	3.63	1.24	0.34	0.34	0.23	0.89	
예쁜 꽃 한 송이 정도는 꺾어 올 수 있다.	4.39	0.88	0.20	0.57	0.50	0.88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린다면 나도 버릴 수 있다.	4.50	0.80	0.18	0.53	0.40	0.88	
추억을 기념할 것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후회한다.	4.25	1.07	0.25	0.63	0.48	0.87	
내가 다녀간 흔적을 남기고 싶다.	4.44	1.00	0.22	0.58	0.46	0.87	
나는 다소간의 일탈행동을 할 수 있다.	4.34	0.94	0.22	0.71	0.72	0.87	
관광지에서만큼은 내 맘대로 하고 싶다.	4.48	0.81	0.18	0.64	0.56	0.87	
시끄럽게 노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4.61	0.77	0.17	0.51	0.45	0.88	
관광지에서는 약간의 일탈을 허용하여야 한다.	4.31	0.94	0.22	0.69	0.70	0.87	
관광지에서 소리를 지를 수 있다.	4.48	0.84	0.19	0.57	0.55	0.88	

*: 신뢰도 분석 후 제거된 항목

표 3. 관광환경태도 측정항목의 타당도 분석

항목	요인적재량			공동 변량
	추억표상	반환경적 행동동조	반환경적 일탈	
돌·꽃을 가져오는 것은 관광객의 권리이다.	0.82	0.25	0.16	0.70
추억을 남기기 위해 조약돌 정도는 주워올 수 있다.	0.75	0.24	0.00	0.54
기념물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관광은 재미없을 것이다.	0.72	0.31	0.33	0.64
돌에 이름을 새기는 정도는 봐줄 수 있다.	0.69	0.22	0.30	0.53
담배 궤초 버리는 정도는 용서해야 한다.	0.69	0.19	0.09	0.71
예쁜 꽃 한 송이 정도는 꺾어 올 수 있다.	0.19	0.78	0.02	0.56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린다면 나도 버릴 수 있다.	0.05	0.76	0.34	0.62
추억을 기념할 것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후회한다.	0.29	0.67	0.17	0.56
내가 다녀간 흔적을 남기고 싶다.	0.24	0.63	0.28	0.52
나는 다소간의 일탈행동을 할 수 있다.	0.36	0.62	0.10	0.72
관광지에서만큼은 내 맘대로 하고 싶다.	0.44	0.58	0.12	0.61
시끄럽게 노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0.02	0.22	0.81	0.52
관광지에서는 약간의 일탈을 허용하여야 한다.	0.35	0.14	0.69	0.76
관광지에서 소리를 지를 수 있다.	0.45	0.21	0.55	0.62
고유값	6.21	1.31	1.08	-
분산설명력(%)	44.39	9.35	7.73	-
누적설명력(%)		61.47		

지에서는 약간의 일탈을 허용하여야 한다' 등 관광활동의 일탈 성과 관련된 항목으로 '반환경적 일탈'로 명명하였으며, 분산 설명력은 7.73%이다. 3개 요인의 총 분산 설명력은 61.47%이다.

2. 생태관광활동 참여에 따른 관광환경태도 차이

본 연구는 우포늪 습지 생태관광 탐방객을 대상으로 생태관광활동 참여가 관광환경 태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

표 4. 생태관광활동 참여 이후의 관광환경태도(항목별) 변화

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돌·꽃을 가져오는 것은 관광객의 권리이다.	사전	4.64	0.88	-3.71	0.00**
	사후	4.83	0.63		
추억을 남기기 위해 조약돌 정도는 주워올 수 있다.	사전	3.87	1.26	-7.76	0.00**
	사후	4.47	0.94		
기념물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관광은 재미없을 것이다.	사전	4.30	1.10	-5.58	0.00**
	사후	4.61	0.87		
돌에 이름을 새기는 정도는 봐줄 수 있다.	사전	4.64	0.82	-2.44	0.02*
	사후	4.74	0.64		
담배 궤초 버리는 정도는 용서해야 한다.	사전	4.78	0.75	-1.51	0.13
	사후	4.85	0.52		
예쁜 꽃 한 송이 정도는 꺾어올 수 있다.	사전	4.39	0.88	-3.96	0.00**
	사후	4.61	0.71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린다면 나도 버릴 수 있다.	사전	4.50	0.80	-4.63	0.00**
	사후	4.70	0.68		
추억을 기념할 것을 가져오지 않으면 후회한다.	사전	4.25	1.07	-5.91	0.00**
	사후	4.65	0.74		
내가 다녀간 흔적을 남기고 싶다.	사전	4.44	1.00	-5.53	0.00**
	사후	4.78	0.62		
나는 다소간의 일탈행동을 할 수 있다.	사전	4.34	0.94	-3.43	0.00**
	사후	4.55	0.81		
관광지에서만큼은 내 맘대로 하고 싶다.	사전	4.48	0.81	-4.33	0.00**
	사후	4.68	0.63		
시끄럽게 노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사전	4.61	0.77	-3.45	0.00**
	사후	4.78	0.51		
관광지에서는 약간의 일탈을 허용해야 한다.	사전	4.31	0.94	-5.25	0.00**
	사후	4.58	0.73		
관광지에서 소리를 지를 수 있다.	사전	4.48	0.84	-2.74	0.00**
	사후	4.63	0.79		

*: $p < 0.05$, **: $p < 0.01$

하기 위한 것으로, 생태관광활동 참여 이전과 이후의 개별항목과 요인을 활용한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표 4에서 생태관광활동 참여 이전과 이후의 개별항목을 활용한 차이 검증 결과, '담배 궤초 버리는 정도는 용서해야 한다' 항목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13개 항목에서는 생태관광활동 참여 이후에 더 친환경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는 '돌에 이름을 새기는 정도는 봐줄 수 있다'의 항목에서만 $p < 0.05$ 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나머지 12개 관광환경태도 항목에서는 $p < 0.01$ 의 엄격한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생태관광지 방문객은 생태관광활동 참여를 통해 친환경적인 태도를 매우 뚜렷하게 강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생태관광활동 참여자는 관광활동 중에 다양한 환경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방문 전에

형성하고 있는 친환경적인 태도를 보다 정교하게 강화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우포늪 생태관광지는 생태관광 개발 및 운영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친환경 태도의 형성과 강화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생태관광활동 참여 이후의 관광환경태도 변화를 각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 본 결과, 표 5와 같이 3개 요인에서 모두 $p < 0.01$ 의 엄격한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때 각 요인이 평균값은 각 요인을 구성하는 측정항목을 합산평정한 평균값이다.

특징적으로 표 5에서 3개 요인의 생태관광활동 참여 이후의 관광환경태도 변화 크기는 '반환경적 행위동조 요인' > '추억 표상 요인' > '반환경적 일탈 요인'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생태관광활동 참여 이후의 관광환경태도 변화는 '반환경적 일탈'

표 5. 생태관광활동 참여 이후의 관광환경태도(요인별) 변화

항목	평균		표준 편차	t값	유의 확률
추억 표상	사전	4.44	0.69	-6.30	0.00**
	사후	4.64	0.57		
반환경적 행위동조	사전	4.36	0.76	-9.70	0.00**
	사후	4.68	0.55		
반환경적 일탈	사전	4.56	0.63	-5.19	0.00**
	사후	4.72	0.51		

*: $p < 0.01$

태도보다 '반환경적 행위동조' 태도의 변화가 더 크다는 것이다. 이는 생태관광활동 참여를 통하여 '반환경적 행위동조' 태도를 친환경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생태관광의 역할을 확인하는 중요한 결과이다. '반환경적 일탈' 태도는 고강도의 환경태도이고, '추억 표상'은 저강도의 소극적 환경태도라는 점에서 생태관광활동 참여가 양극단의 환경태도보다는 '반환경적 행위동조'라는 중간적 환경태도 변화에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친환경 태도를 강화하는 것은 결국 이 '반환경적 행위' 태도와 관련이 높기 때문이다.

V. 결론

생태관광은 환경을 보존하고 지역주민의 복지를 유지하는 자연지역으로의 책임 있는 관광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한 대안관광의 하나이다. 본 연구는 최근에 들어 생태관광에 대한 연구와 생태관광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교화 가능성 모형(elaboration likelihood model: ELM, Petty & Cacioppo, 1986) 이론을 바탕으로 생태관광활동에 따른 관광환경태도의 변화를 논의한 것이다. 생태관광활동에 참여하는 관광객은 높은 정교화 수준의 고관여 집단으로 이미 친환경 태도를 형성하고 있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신념과 태도에 일치하는 생태관광활동 참여는 순환적으로 친환경 태도를 강화할 것으로 가설하고, 우포늪 습지 방문객 183명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우포늪 습지 생태관광 참여자를 대상으로 생태관광활동 참여 이전과 이후의 관광환경 태도의 변화의 차이를 검증(t-test)한 결과, '담배 꺾초 버리는 정도는 용서해야 한다' 항목을 제외한 13개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인분석에 의해 도출된 3개 요인으로 구분하여 차이를 검증(t-test)한 결과 '반환경적 행위동조 요인' > '추억 표상 요인' > '반환경적 일탈 요인'의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생태관광활동 참여자는 관광활동 중에 생태관광자원의 본질적 속성에 의한 영향과 다양한 환경교육 및 체

험프로그램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방문 전에 형성하고 있는 친환경적인 태도를 보다 정교하게 강화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조사대상지인 우포늪 생태관광지는 생태관광 개발 및 운영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친환경 태도의 형성과 강화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요인별 변화에서 생태관광활동 참여가 양극단의 환경태도보다는 '반환경적 행위동조'라는 중간적 환경태도 변화에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생태관광활동 참여를 통하여 '반환경적 행위동조' 태도를 친환경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생태관광의 역할을 확인하는 중요한 결과이다. 따라서 생태관광지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특성 및 환경의식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반환경적 행위와 일탈 태도를 완화하고 친환경 관광태도를 강화할 수 있는 생태관광 개발 및 운영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연구방법에서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우포늪 탐방 활동을 생태관광의 범주로 이해할 수 있는지,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점에서 조사 목적을 파악하고 실제보다 더 긍정적인 응답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연구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용문헌

- 고동완, 김현정, 김진(2010) 녹색관광이란 무엇인가: 개념과 의미. 관광학연구 34(6): 37-58.
- 고동우(1998) 관광의 심리적 체험과 만족감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동우(2000) 관광객의 환경보전의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관광학연구 24(2): 47-71.
- 고동우(2006) 관광객의 친환경태도와 행동의 관계에 대한 위협소구: 환경광고의 영향. 관광학연구 25(3): 139-160.
- 김남조(2001) 관광목적지에 대한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지각, 태도, 기대행위 차이. 관광학연구 25(3): 43-62.
- 김성일, 박석희(2001)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서울: 일신사.
- 문창현(2009) 생태관광의 환경해설이 관광객의 환경의식 및 관광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연구 17(2): 51-75.
- 박석희(2000) 생태관광 개념에 대한 고찰. Tourism Research 14: 67-88.
- 방순혁, 이상원(2008) 생태공원을 활용한 체험환경교육이 초등학생의 환경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초등교육 19(1): 57-75.
- 엄서호(2000) 대안관광으로써 생태관광의 적용: 동강지역을 대상으로. 경기관광연구 4: 83-104.
- 조진희, 김수봉(2007) 관광태도로 분류한 생태관광과 대중관광객의 특성 비교. 관광레저연구 19(1): 27-43.
- 최영국, 임상연(2005) 생태관광 활성화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한국관광공사(1996) 생태관광 개발방향과 전망.
- 한국관광공사(2009) 습지 관광자원화 방안 연구.
- Ajzen, I.(1988) Attitude, Personality, and Behavior. The Dorsey Press.
- Eagly, A. H. & S. Chaiken(1993) The Psychology of Attitudes. Orland FL: Harcourt Brace Jovanoich, Inc.
- Gilbert, J.(1997) Ecotourism Means Business. GP Publications.
- Griffiths, A.(1993) Ecotourism: The nature of travel. Annals of Tourism Research 25(3): 755-758.

19. Luzar, E. J., Christopher, A. D. and R. H. Brenda(1998) Profiling the nature-based tourist: A multinomial logit approach, *Journal of Tourism Research* 37: 45-55.
20. Mansfeld, Y. and O. Ginosar(1994) Evaluation of the repertory grid method in studies of local attitude towards tourism development processes. *Environment and Planning A*, 26: 957-972.
21. Petty, R. E. and J. T. Cacioppo(1986) The elaboration likelihood model of persuasio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9: 123-205.
22. The International Ecotourism Society(2000) Ecotourism Statistical Fact Sheet. The International Ecotourism Society.
23. Wallace, D. R.(1992) Ecotourism, *Landscape Architecture*, 82(8): 36.
24. Western, D.(1993) Introduction: Definition of ecotourism, In *Ecotourism: A Guide for Planners and Managers*, Volume 1, K. Lindberg and D. E. Hawkins, eds. The Ecotourism Society.
25. Wight, P.(1993) Ecotourism: Ethics or Eco-sell? *Journal of Travel Research*, 31(3): 3-9.
26. WTO(1997) Yearbook of Tourism Statistics 1996(49th edn). Madrid: WTO.
27. 우포늪 사이버 생태공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upo.or.kr>).

원 고 접 수 일: 2010년 11월 5일
 심 사 일: 2010년 12월 8일(1차)
 2010년 12월 14일(2차)
 계 재 확 정 일: 2010년 12월 21일
 3 인 익 명 심 사 필